

이 사 회 회 의 록

○ 회의 일시 : 2016년 09월 28일(수) 11:00

○ 회의 장소 : 정우요양원상담실

○ 참석 인원 : 이사총수 : 7명

출석이사수 : 6명

불참이사수 : 1명

감 사 : 2명

참석감사수 : 1명

- 성원보고

총이사 7명중 6명 참석으로 정관 28조 1장에 의거 임시이사회를 개최 합니다.

- 일반현황 요양원직원 27명, 복지센터직원 10명 총37명, 어르신 입소이용현황 요양원 41명, 방문요양 9명, 주간보호5명, 재가지원22명, 주간돌보미9명, 총 86명 입소 및 이용 현황 보고 함.

- 의 장 :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정관변경을 상정함.

- 의 장 : 정관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 11조, 12조, 16조, 17조, 30조를 붙임 정관 안으로 수정하고 수익사업 미추진에 따른 조문삭제 하여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간 사 : 정관변경전 · 후 조문을 설명 제4조 해당 사업에 법조항을 제시하고, 사업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표기함. 제11조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 수정하며, 제1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수정 함. 제16조 2항삭제하며, 3항 이

사정수의1/3(소수점이하는버림)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선임한다로 수정하고 4장을 종전 2항과 동
일함 제17조는 1항에 제18조 제3항을 동조 제2항으로 제17조2항에 제18조3항을
2장으로 수정함. 제30조 1항 의사록을 회의록으로 수정하고 기명날인을 기명인감
날인으로 수정하며 3항 의사록을 회의록으로 수정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수익사업 제31조, 제32조 삭제함.

- 오영일 이사 : 정관수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된 것으로 우리법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 김형호 이사 : 재청합니다.

- 의 장 : 1호의안 정관변경 가부를 물음(전원으로 담함). 제1호의안 정관조문
변경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함.

- 의 장 : 제2호의안 법인회계편성심의를 상정함.

2016년도 법인예산을 회의비, 다과비, 사무용품비등 최소금액으로 450,720원으로
편성하여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여 정관 제11조에 명시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하고자 함.

-오영일 이사 : 종전에는 법인회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 의 장 : 법인에 수익사업이 없어서 시설회계만 편성해서 운영 했습니다. 법인
회계를 편성하라고 하는데 법인에 수익사업이 있는데는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편성 어렵고 지출도 없습니다. 또 우리법인은 후원금을 시설에서 모
집하고 시설에서 전액 직접에 사용하고 후원수수료만 지출 합니다.

-김형호 이사 : 법인회계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 의 장 : 시설회계에서 전출해서 법인예산에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목이 있
습니다. 시설에서 회의비, 다과비 최소한 금액만을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석재 이사 :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 함.

-이용만 이사 : 재청합니다.

- 의 장 : 법인 회계편성가부를 물음(전원예로 담함)
부의안건 제2호의안 원안대로 통과함.

- 의 장 : 제3호의안 법인차량 명의변경(시설회계로환원)심의를 상정함.

2011. 03. 11 28라 6088(SM7)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 시설장겸직인 이사장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으나, 법인회계에서 운영하지 않고 시설 회계에서 운영비, 차량가액이 지출된 것은 부당하고 차량구입비 운영비를 전액 시설운영비로 개상하라 하여 2016. 04. 01부터 2017. 06. 30.까지 시설회계로 상환하기로 함.

-김용만 이사 : 업무차량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시설장 역할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반환조치도 2016. 03. 11.부터 공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 안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가혹한 상환조치입니다.

-김형호 이사 : 법인회계에서 구입 및 운영비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법인에 수익사업이 없음을 간과해야 하는데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석재 이사 : 이사들이 이 부분은 별 도움이 안되네요

-오영일 이사 : 상환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활동한 부분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상환 하라고 하면 부담이 덜 할 것인데 온전히 사적으로 그동안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분명 업무적으로 운행이 있었을텐데 너무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한창국 감사 : 재심청구는 해보았습니까?



-정석재 이사 :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 함.

-김형호 이사 : 재청 합니다.

- 의 장 : 제3호의안 법인차량명의변경 (시설회계로환원)심의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을 기타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임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